



주 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 제 3 주일” (다해)	2007년 4월 22일
복음 묵상:	요한 21,1-19	사도 5,27 ~-32.40 ~-41	묵시 5,11-14]

오늘은 세 번의 사랑 확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라고 잔잔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수난 전의 즉흥적인 고백과는 달리 베드로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고백이라고 느껴집니다. 죽음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걸음에서 그의 진실한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봉사는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교회 수위권은 양들을 보살피는 봉사와 섬김의 직분이며, 베드로의 사랑과,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필연적인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봉사는 사랑과 믿음에 바탕을 둔 희생을 - 오늘 제 1 독서의 사도들처럼 -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게 될 때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성가대 소식

#### 1. 축입단 환영

정미정 데레사 자매님이 성가대 가족으로 주님께 봉사하고자 새로 입단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따뜻이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 가족 동정

- 장수아 세레사 자매님 부활 전후로 오랫동안 반주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지난달 결혼한 서병문 야고보 형제님의 새색씨가 4/15 드디어 산호세에 도착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 새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윤안도 요셉 형제님 금주 LA 를 거쳐 4/24 일 3 주간의 여정으로(5/15) 서울을 방문하십니다.
- 조병화 솔로몬 형제님 4/20(금) 3 개월 예정으로 한국으로 나머지 정리 차 떠나셨습니다.
- 이대원 요한 형제님 4/9(월) 2 주간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 구영조 요한 형제님 1 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말없이 입단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불연듯 떠나시게 되어 모든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행중이신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문성호 요셉 형제님과 멜라니아 자매님 집 이사관계로 3 주 나오시지 못합니다.
- 최상진 엘리자벳 자매님이 온 가족과 함께 유럽 성지 순례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 3. 기도 요청

- 김 인숙 세실리아 자매님, 심한 기침 알레지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주시기를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조경자 율리아나 자매님(소프라노 팀장)께서 다리가 아파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청하여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은순 아네스 자매님; 한국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어 급히 4/8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가족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편안히 다녀오시기를 기도 중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 4. 알림

### 본당 창립 30 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한 예비모임

4월 22일 교중 미사 후 연습실에서 30주년 음악회를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 임원, 각 파트장님들과 악단 책임자님들을 모시고 30주년 기념 음악회 준비를 위한 예비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1분 명상

### ♡ 마음의 주인이 되라 ♡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업매인다는 뜻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 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자극에서라기보다 마음을 견잡을 수 없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 마음이란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 들이다가 한 번 웅졸해지면  
바늘 하나 꽃을 여유조차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 사람들은 말한 것이다.

- 법정스님의 '무소유' 중에서 -

#### + 복음 [요한 21,1-19]



새로단장한 본당 웹 주소: [www.sjkoreancatholic.org](http://www.sjkoreancatholic.org) 성가대 추억의 앨범에 가지고 계신분이나, 나눔방에 많은 글도 남겨주시고, 우리가족들이 가꾸어야겠습니다. 같이 나눌수 있는 모든 내용을 실어주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15)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other do?”